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Social Activity and Leisure Activity of the Rural Elderly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안종철, 임왕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Jong-Cheol An(belljcan0102@naver.com), Wang-Kyu Lim(wklim@hoseo.edu)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농촌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사회활동,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340분의 자료 중 결측치를 제외한 324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삶의 만족도 및 기대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은 주관적 삶의 질인 삶의 만족도와 삶의 기대감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삶의 만족도에는 종교활동과 취미, 사교활동 등의 여가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기대감에는 취미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은 주관적 경제만족과 생활수준 기대감, 정부/지자체 기대감에 영향을 미쳤고, 자원봉사활동과 소일거리는 주관적 건강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를 고려하여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농촌 노인 | 사회활동 | 여가활동 | 주관적 삶의 질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social activity, leisure activity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rural elderly. For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of the factors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of the social activity and leisure activity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rural elderly.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total 324 responses were used in the data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ocial activity, leisure activity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was shown to the partially differences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ocial activity and leisure activity of the rural elderl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and expectation of life as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religious activities and leisure ac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life, and the leisure activity through hobbi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xpectation of life. The economic ac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ubjective economic satisfaction, expectation of living standard and municipal government. Also, the volunteer activity and pastim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ubjective health satisfaction. Finally, this study was discuss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the solution to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rural elderly.

■ keyword : | Rural Elderly | Social Activity | Leisure Activity | Subjective Quality of Life |

I. 서론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수와 노인층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의 고령화율은 20.9%로 9.2%인 도시보다 2배 이상 높음[1]에도 불구하고 농촌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나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편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농촌 노인이 삶의 질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고[2], 노인케어나 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으므로 농촌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에서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하며[3], 농촌 노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기대수준으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인적 특성 및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삶의 질은 복잡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객관적인 삶의 질과 주관적인 삶의 질 중에서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는가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진다. 자신의 삶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질은 만족감, 안녕, 행복, 심리적 복지 등으로 규정되며,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4]. Brief 등[5]에 의하면 인지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을 의미하며,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조건 속에서의 기대가 현실의 만족과 어느 정도 합치되고 있는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나타낸다[5]. 정서적 안녕은 삶의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 혹은 기대에 대한 선호도로 파악되며,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와 삶의 기대감으로 구성되는 개념[6][7]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관적인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만이 아니라 기대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도 기존의 연구 [2][8-10]들은 삶의 만족도에 치중하여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분석해 왔다. 노인의 주관적인 인지에 따른 삶의 질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생에 관한 행복 및 생의 목표 달성과 연결될 뿐 아니라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3]이다. 따라서 농촌

노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만족도와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기대감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농촌 노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11][12],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요인에 관심을 가져 왔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신체 및 인지기능 등이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게 나타났고[13][14], 생산적 및 소비적 여가활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년기의 삶에 중요한 요인이다[15]. 농촌 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16]에서는 농사일 참여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에 의한 비자발적인 활동이라 하였고,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인 복지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통해서 농촌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종교적 참여, 지역사회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적 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며[17-19],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통한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농촌 노인의 사회문화적 혜택이 도시 노인에 비해 열악했지만,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로 정책적 지원 및 장치가 조성된다면 이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활동, 여가활동 및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및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 즉, 삶의 만족도와 삶의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여가적 요인을 파악하고,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체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은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 활동이론은 1950년대에 Havighurst[20]가 주장한 이론으로서 그는 성공적인 노화의 이론적 모델로 노년기에도 중년기의 활동과 태도 유지를 강조하는 이론을 제시하였고, 자원봉사나 종교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은 노년기의 삶에 보다 잘 적응하게 해주고 동시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요소가 된다[21].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여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종교,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여가활동으로 보는 견해[15][22][23]가 있고, 여가활동을 사회활동에 포함시키거나[24]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의 요인들이 혼재되어 연구되고 있어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을 개인적인 경제활동에서부터 지역사회조직이나 단체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의 교류를 통해 구조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종교 및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고, 여가활동은 집안일, 일상적인 교류 및 친목 등의 보다 소소한 활동이나 시간활용으로서의 취미활동, 교육 및 학습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은 노년기의 삶에서 중요하며, 노년기에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1.1 사회활동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은 사회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갖게 하고, 사회단체가 개인에게 부여한 역할들은 사회적 역할 상실을 보상해 주어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25]. 사회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요소이며,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과 함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17]. 농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 연구[17]는 생산활동에 속하는 돈벌이, 자원봉사, 가사노동 참여와 대인접촉의 사회활동인 단체활동, 교육 및 지적활동인 교육활동 참여로 사회활동을 정의하고, 이러한 활동이 연령,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며 사회활동 만족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권수진[26]은 노인의 사회활동을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으로 나누었고, 림금란 외[24]는 경제활동과 여가 및 봉사활동으로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측정하여 우울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활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사회활동을 광범위한 개념으로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인 대외 관계와 접촉을 유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도시·농촌·어촌지역 노인의 사회활동 비교 연구[27]에서는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활동, 종교활동, 봉사활동 및 단체참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과 어촌에서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고 종교단체 참여율은 어촌에서 가장 높았으며, 농촌 노인의 사교 및 운동단체 가입과 봉사단체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27].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에 중점을 둔 연구[28]에서는 자원봉사와 종교활동, 친목단체활동의 영역을 제안하였고, 이묘숙[29]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서 경제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및 단체활동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소정[30]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유형을 비공식적 활동과 공식적 활동으로 구분하였는데, 비공식적 영역에서 무급으로 수행되는 대표적인 노인의 역할이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돌봄인 반면, 공식적 활동은 유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사회참여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 종교단체 및 각종 단체활동 등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을 공식적인 사회참여활동의 관점에서 경제활동과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각종 단체, 공동작업 등에 참여하거나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회활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 자아통합감 및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1.2 여가활동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이나 사회접촉의 기회,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 및 노후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15]. 노인의 여가활동을 생계를 위한 생업활동을 제외한 일상의 활동으로 보는 견해[31]도 있으며, 심남수[22]는 여가활동이 만성화된 무료함과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신체 및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안계일[32]에 의하면 노인의 여가개념은 젊은이들의 여가와는 그 유형을 달리하며,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을 가질 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 구분된다. 정신적 여가활동에는 취미활동이나 교양·학습활동, 사교활동이 포함되고, 신체적 여가활동은 운동이나 스포츠·레저 등의 개념이며, 사회적 여가활동은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나타낸다. 이 중 사회적 여가활동은 선행연구[28]에서 사회참여활동으로 분류되고 있고, Fratiglioni[33]는 노년기 여가활동에 있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촌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34]에서는 취미와 학습활동을 포함한 소양교육활동, 소일거리, 사교활동 등을 제시하였고, 백종욱 등[35]은 소일형 여가활동과 취미문화형 여가활동, 그리고 노인교류형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의 여가활동을 정신적·신체적 여가활동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취미활동과 학습활동, 사교활동 및 소일거리로 분류하였다.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기존 연구[35][36]는 여가활동 정도, 참여 유무 및 빈도 등으로 측정하여 삶의 질이나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왔다. 최인근[37]은 여가활동을 건강·스포츠활동, 오락·사교활동, 취미·교양활동, 관람·감상활동 등으로 세분하고, 이들 여가활동의 참여정도에 따라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으며 개인적 특성이 여가활동 참여정도의 차이 요인이라고 하였다. Toepoel[38]은 여가활동으로 영화관람, 콘서트 및 전시회 등의 문화적 활동과 운동,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독서, 취미활동, 쇼핑, 컴퓨터 사용 등

의 활동을 포함시켰고, 이들 여가활동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노인들이 여가활동의 참여가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노인의 여가활동과 심리적 웰빙에 관한 연구[39]에서는 생산적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고독감으로 측정된 심리적 웰빙의 영향요인이고, 소비적 여가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생산적·소비적 여가활동의 개념은 Erik and Koen[23]의 연구에서 제시하였으며, 김명숙, 고종욱[15]에 따르면 생산적 여가활동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공통의 목적이 있는 발전적인 활동으로서 건강·스포츠 활동, 취미활동, 학습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등이, 소비적 여가활동은 수동적 형태의 시간소비활동으로서 라디오청취, TV시청, 휴식 등과 같은 소일활동이나 바둑, 장기, 경로당 등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등과 같은 오락·사교활동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정화, 한경혜[16]는 농촌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정도를 여가시간 없음, 집에서 소일,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과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의 여가활동을 취미활동, 학습활동, 사교활동 및 소일거리로 분류하였다. 또한 농촌 노인의 여가활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2. 농촌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김숙경[3]에 의하면 삶의 질은 ‘물리적, 경제적, 신체적인 면과 함께 심리적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며,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성공적인 노화와 직결된다[9].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2][10]들은 개인의 안녕감이나 생활상의 만족 및 행복감에 중점을 두어 왔고, Liu[40]는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을 사람들의 ‘웰빙’을 위한 주관적인 용어이자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은 크게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권중돈, 조주연[4]은 인지적 차원이 삶에 대한 기대, 욕구, 희망 또는 다른 준거집단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인 반면 정서적 차원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정서경험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정서를 적게 경험하며 삶의 만족이 높으면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41]. 김정호[7]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도 웰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였고,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6]에서는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측면에서의 삶의 기대감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농촌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만이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신체적,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건강 및 경제적 만족을 나타내며, 신체적 건강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영역, 생활환경 영역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이다[8]. 노인의 삶의 질 척도를 개발한 연구[42]에서는 신체, 심리적 건강과 독립성의 수준, 사회관계, 환경, 종교 등과 전반적인 건강 및 삶의 만족도로 측정하여 삶의 질을 신체적, 심리적 건강, 사회관계 및 경제수준, 물리적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43][44]에서는 노인의 성별과 연령,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강조하였고, 건강과 소득, 경제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이었다[4]. 주경희[45]는 노인의 경제참여활동과 사교참여활동, 자기개발참여활동에 대한 몰입경험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건강 및 경제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통제요인이라 하였다. 이 연구들은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만족도의 측면에서 삶의 질을 측정할 한계를 갖고 있다.

삶의 기대감은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과 기대의 정도[41]로서 아직도 더 살아갈 날이 많을 것이라는 수명에 대한 기대감과 생활수준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로 개념화할 수 있다[6].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노인의 주관적 기대감을 기대수명과 생활수준 및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석하였으며[46], 이 기

대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고 과거에 비해 기대수준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47]. 강은영[48]은 여성노인의 생활무용 참가기간이 삶의 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참가 빈도와 시간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희연, 전혜성[49]은 사회적 지지와 삶의 기대가 우울을 낮추는 요소이기 때문에 긍정적·적극적인 심리 또는 대인 관계적 변인들이 우울 수준을 낮추는 예방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의 소득지위에 따라 생활수준 및 정부 기대감으로 구성된 주관적 기대감과 건강 및 경제상태 만족감, 삶의 만족감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50].

농촌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과 사회 및 여가활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농촌 여성노인의 경우 교육활동의 참여가 높고 사회활동 만족감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17],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농촌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51]. 김숙경[3]은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일상생활 영역과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김종인, 김윤정[34]은 농촌 노인의 일여가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감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일-여가분리집단과 일중심집단에 비해 일-여가통합집단과 여가중심집단의 삶의 만족감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는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제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연구[2]에서도 농촌 노인의 삶의 질에는 여가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삶의 질은 만족도의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삶의 기대감까지 포함하여 주관적 삶의 질을 파악하였고,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 즉, 삶의 만족도와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 여가활동 및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농촌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활동, 여가활동 및 주관적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농촌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농촌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농촌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은 삶의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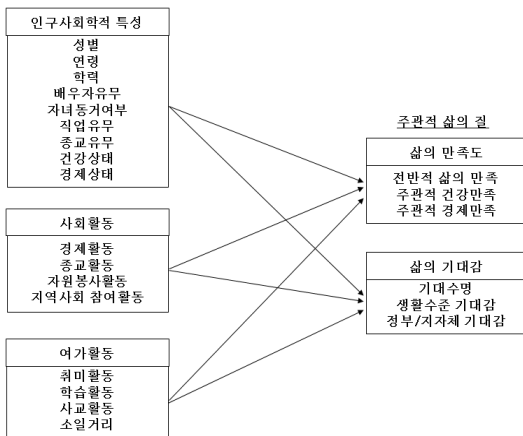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경기도 Y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농촌 노인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3년 12월 20일에서 2014년 1월 20일까지 한 달 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직접 면담의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고 수거하였다. 수집된 340부의 자료 중에서 결측치가 없는 총 32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Win Ver. 18.0을 이용하였다.

첫째,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카이제 규칙이 있는 직각회전방법인 배리맥스를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파악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 여가활동 및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t-test)과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Scheffé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셋째,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하였다.

3.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농촌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 여성이 183명(56.5%)으로 남성 141명(43.5%)보다 더 많았고, 연령은 60~64세 44명(13.6%), 65~69세 55명(17.0%), 70~74세 69명(21.3%), 75~79세 77명(23.8%), 80~84세 52명(16.0%), 85세 이상 27명(8.3%)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무학 73명(22.5%), 초등학교 졸업 100명(30.9%), 중학교 졸업 62명(19.1%), 고등학교 졸업 63명(19.5%), 대학교 졸업이상 26명(8.0%)로 초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유무에서는 없다 135명(41.7%), 있다 189명(58.3%)이었으며, 자녀동거여부에서는 동거하지 않는다 239명(73.8%), 동거한다 85명(26.2%)으로서 배우자는 있으나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유무에서는 없다 240명(74.1%), 있다 84명(25.9%)이었고, 종교는 없다 89명(27.5%), 있다 235명(72.5%)이 응답하였으며,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다 31명(9.6%), 나쁜 편이다 104명(32.0%), 보통이다

123명(38.0%), 좋은 편이다 66명(20.4%)이었다. 경제상태는 매우 어렵다 42명(13.0%), 어려운 편이다 79명(24.4%), 보통이다 166명(51.2%), 좋은 편이다 37명(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여가활동 및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변수로 하며, 이에 관한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 중 주관적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와 삶의 기대감으로 구분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직업유무, 종교유무, 건강 및 경제상태의 9문항을 명목적으로 측정하였다.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삶의 만족도 및 기대감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다. 이들 변인의 타당성은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고유치 1.0 이상, 요인부하량 0.5이상인 경우를 유효한 변수로 하였다. 신뢰성 분석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값이 0.6이상일 때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을 나타낸다.

1.1 사회활동

사회활동은 선행연구[27][29][30]의 분류를 참조하여 경제활동과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관한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항목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에서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경제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순으로 묶였고, 전체 분산의 82.267%를 설명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0.853~0.973으로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표 1. 사회활동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 분산 (%)	신뢰도 계수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906	4.646	23.232	.972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897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890	4.577	46.116	.973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 보람되고 행복하다	.881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877			
종교활동	종교기관(교회, 절, 성당 등)에 참여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949	4.577	46.116	.973
	종교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즐겁고 행복하다	.943			
	과거부터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939			
	정기적인 종교모임(주일예배, 정기법회, 미사 등)에 자주 참석한다	.937			
	나의 생활에서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937			
경제활동	경제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912	4.131	66.770	.935
	경제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887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872			
	경제활동을 통해 대인관계나 사회관계에 도움을 받고 있다	.851			
	현재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향상되고 있다	.817			
지역사회 참여활동	우리 지역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다	.817	3.099	82.267	.853
	우리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보람 있는 일이다	.790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752			
	매일 노인회관에 들러 사람들과 만난다	.699			
	우리 지역에서 공동작업(청소, 환경보호 등)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629			

1.2 여가활동

여가활동은 노년기의 신체적·정신적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Fratiglioni[33]의 연구를 토대로 하고, 선행연구[34][35]에서 항목을 발췌하여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가활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표 2], 취미활동, 학습활동, 사교활동, 소일거리의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의 61.227%를 설명하였고, 요인값 0.5이하를 보인 1개 항목(집에서 손자나 손녀를 돌보고 있다)이 제거되었다.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0.824~0.858로서 신뢰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여가활동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	신뢰도 계수		
취미 활동	취미활동으로 산책이나 등산, 운동을 하면서 체력도 관리하고 있다	.782	3.840	17.453	.858		
	취미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이다	.756					
	취미활동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활력을 얻고 있다	.730					
	음악회나 전시회, 공연관람을 하면서 문화생활을 즐긴다	.661					
	영화를 보거나 쇼핑, 시장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649					
	독서를 하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여가시간을 보낸다	.553					
	가족동반 여행이나 외식을 자주 한다	.535					
	노인학교, 사회교육기관 및 문화센터 등의 교육이나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824				3.636	33.981
지금도 무언가를 배우면서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느낀다	.814						
컴퓨터 등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706						
노래나 서예, 원예, 요리 등의 교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696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글이나 한자, 영어 등을 배우고 있다	.598						
요가나 단전호흡, 수지침, 건강관리법 등을 배우고 있다	.556						
가족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친척집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818	3.212	48.582	.834			
이웃들과 소소한 이야기라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낸다	.757						
가족행사가 있으면 적극 참여한다	.741						
우리 지역의 모임에 자주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	.612						
중천회, 동창회, 친목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594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작은 일라도 찾아서 하는 편이다	.834				2.782	61.227	.824
무언가 소일거리라도 없으면 허전하다	.783						
매일 집안 청소나 설거지를 하고 있다	.776						
집근처 정원이나 화초, 나무 가꾸기를 하면서 소일거리라도 찾는다	.734						

1.3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와 삶의 기대감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삶의 만족도는 선행연구[6][18][42]를 참조하여 20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 삶의 만족, 주관적 건강만족 및 경제만족의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3].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의 69.620%를 설명하였고,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0.915~0.923으로서 신뢰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삶의 만족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	신뢰도 계수			
전반적 만족	지금까지의 내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816	4.986	24.931	.923			
	지금까지의 내 삶은 상당히 성공적이다	.787						
	내 삶에서 지금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다	.785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성취했다	.76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다	.764						
	지금도 나는 바쁜 삶을 살고 있어 만족한다	.720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흥미롭다	.712						
	지금도 일상활동(일, 가사, 여가활동 등)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820				4.663	48.248	.915
	통증이나 불편감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	.815						
	먼 거리라도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	.803						
아직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만족스럽다	.798							
지금까지 살면서 건강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	.773							
혼자서 몸을 씻거나 옷 입는데 별 어려움이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	.665							
불안하거나 우울감 없이 낙천적이고 즐겁게 살고 있다	.597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의 경제생활 수준에 만족한다	.815	4.274	69.620	.915				
현재의 저축액이나 여유자금에 만족한다	.809							
지금까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별로 없다	.774							
일상적인 소비 생활 수준에 만족한다	.768							
현재의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764							
큰 빚을 진 적이 없고, 지금도 빚이 없어서 만족스럽다	.714							

다음으로 삶의 기대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유태균, 반정호[47]의 연구와 선행연구[41][50]를 참고하여 15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기대수명, 생활수준 기대감, 정부/지자체 기대감의 3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분산의 62.909%를 설명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요인값 0.5 이하를 보인 1개 항목(정부로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다)이 제거되었으며, Cronbach's α계수가 0.814~0.842로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표 4. 삶의 기대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 분산 (%)	신뢰도 계수
기대수명	나는 동년배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다.	.849	3.057	21.838	.842
	나는 평균 기대수명(남자:77세, 여자:84세)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다.	.791			
	나는 100세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	.753			
	앞으로 20~30년 이상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679			
	아직도 나는 살아갈 날이 많다.	.612			
생활수준기대감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생각하면 1억원 이상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	.803	3.039	43.545	.819
	앞으로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794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 남은 생활이 안정적일 것 같다.	.760			
	앞으로 내 생활수준은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732			
	자식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갈 것 같다.	.534			
정부/지자체기대감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지역의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다.	.827	2.711	62.909	.814
	앞으로 농촌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더 많아질 것 같다.	.803			
	정부나 지자체가 나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것 같다.	.763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인해 앞으로 10년 이상은 잘 살아갈 것 같다.	.723			

IV.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 여가활동 및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는 각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과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직업유무, 종교 유무는 t-test를 통해 분석하였고, 연령과 학력,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는 ANOVA로 차이 분석을 하였다.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 차이

농촌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연령($F=7.842, p<.001$), 학력($F=11.961, p<.001$), 배우자유무($t=-3.353, p<.01$), 직업유무($t=-2.916, p<.01$), 종교유무($t=-2.627, p<.01$), 건강상태($F=5.299, p<.01$), 경제상태($F=4.313, p<.01$)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났다. 특히 연령이 65~69세,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고,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편이면서 배우자와 직업 및 종교가 있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다. 선행연구[52]에서도 자원봉사 참여요인이 연령과 교육수준, 종교, 배우자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자원봉사활동의 주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성별($t=-2.410, p<.05$)과 학력($F=4.560, p<.01$), 자녀동거여부($t=-2.185, p<.05$), 종교유무($t=-20.846, p<.001$), 경제상태($F=3.887, p<.01$)에서 차이가 있었고, 여성이면서 대학교 졸업이상에 자녀와 동거하고 종교가 있으며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의 종교활동 점수가 가장 높았다. 종교활동의 경우 최인근[37]의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으나 본 연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이라는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농촌의 여성노인들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종교활동을 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활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연령은 60~64세가,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경제활동이 가장 높았고, 자녀와 동거하면서 배우자, 직업 및 종교가 있으며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통한 인정이나 성취감, 사회관계의 향상 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연령($F=4.164, p<.001$), 학력($F=2.582, p<.05$), 배우자유무($t=-2.900, p<.01$), 건강상태($F=2.925, p<.05$), 경제상태($F=3.660, p<.05$)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65~69세에 중학교 졸업자로서 배우자가 있고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활동의 요인인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경제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모두에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학력과 경제상태였다.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은 학력이 높고 경제상태가 좋은 집단에서 활발하였는데, 이는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육과 경제적인 부분의 해결이 요구됨을 가리킨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 차이

구분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경제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성별	남성 (n=141)	2.284	1.088	.849	2.983	1.461	-2.410 [*]	2.394	1.118	4.665 ^{***}	2.926	.968	
	여성 (n=183)	2.173	1.262		3.379	1.472		1.840	1.013		2.726	1.039	1.775
연령	60~64세 (n=44)	2.632	.900	7.842 ^{***}	3.309	1.397	1.637	2.773	.902	8.793 ^{***}	2.791	.860	
	65~69세 (n=55)	2.753	1.157		3.476	1.335		2.502	1.097		3.051	.924	4.164 ^{***}
	70~74세 (n=69)	2.171	1.206		2.870	1.527		1.913	1.006		2.875	1.047	3.023
	75~79세 (n=77)	2.249	1.268		3.177	1.523		1.943	1.118		3.023	1.033	2.415
	80~84세 (n=52)	1.619	1.067		3.108	1.526		1.638	.945		2.415	.883	2.370
	85세이상 (n=27)	1.674	.883		3.630	1.443		1.778	1.072		2.370	1.194	2.548
학력	무학 (n=73)	1.636	.902	11.961 ^{***}	2.622	1.370	4.560 ^{***}	1.666	.937	9.410 ^{***}	2.548	.926	
	초졸 (n=100)	2.026	bc		3.212	1.494		1.854	1.053		2.740	1.000	2.382 ^{**}
	중졸 (n=62)	2.435	ab		3.406	1.554		2.261	1.052		3.000	1.090	2.984
	고졸 (n=63)	2.838	a		3.483	1.412		2.479	1.137		2.984	.953	2.977
대졸이상 (n=26)	2.608	ab	3.685	1.271	2.731	.989	2.977	1.112					
배우자 유무	없음 (n=135)	1.963	1.153	-3.353 ^{**}	3.190	1.461	-.176	1.701	.963	-5.537 ^{***}	2.622	.982	
	있음 (n=189)	2.405	1.183		3.219	1.494		2.353	1.101		2.949	1.013	-2.900 ^{**}
자녀 동거 여부	동거인함 (n=239)	2.244	1.213	.571	3.100	1.481	-2.185 [*]	1.952	1.021	-3.634 ^{**}	2.824	1.012	
	동거함 (n=85)	2.158	1.122		3.506	1.435		2.445	1.209		2.781	1.015	.337
직업 유무	없음 (n=240)	2.118	1.227	-2.916 [*]	3.189	1.518	-.362	1.757	.952	-10.445 ^{***}	2.802	1.033	
	있음 (n=84)	2.517	1.023		3.257	1.364		3.010	.929		2.845	.954	-.338
종교 유무	없음 (n=89)	1.942	1.156	-2.627 [*]	1.456	.877	-20.846 ^{***}	1.858	1.099	-2.275 [*]	2.816	.992	
	있음 (n=235)	2.327	1.186		3.870	1.058		2.166	1.081		2.812	1.021	.030
건강 상태	매우나쁨 (n=31)	1.832	b	5.299 ^{***}	2.929	1.570	.557	1.323	.546	12.333 ^{***}	2.523	1.169	
	나쁜편 (n=104)	1.950	ab		3.165	1.458		1.821	1.018		2.652	.977	2.925 ^{**}
	보통 (n=123)	2.389	ab		3.250	1.532		2.283	1.130		2.945	1.011	2.668
	좋은편 (n=66)	2.518	a		3.321	1.375		2.473	1.070		2.958	.944	3.667 ^{**}
경제 상태	매우어려움 (n=42)	1.871	b	4.313 ^{**}	2.614	1.516	3.887 ^{**}	1.481	.761	26.102 ^{***}	2.467	.992	
	어려운편 (n=79)	2.013	b		3.400	1.378		1.572	.803		2.668	.966	3.667 ^{**}
	보통 (n=166)	2.305	ab		3.169	1.554		2.259	1.064		2.908	.963	
	좋은편 (n=37)	2.686	a		3.638	1.052		3.054	1.169		3.086	1.219	

*p<.05, **p<.01, ***p<.001, a,b,c는 scheff 검증결과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취미활동은 성별(t=2.831, p<.01), 연령(F=4.164, p<.01), 학력(F=18.020, p<.001), 배우자유무(t=-5.233, p<.001), 직업유무(t=-2.830, p<.05), 건강상태(F=12.660, p<.001), 경제상태

(F=15.429, p<.0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연령은 60~64세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취미활동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와 직업이 있으면서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등산, 운동, 영화, 공연 관람, 쇼핑, 시장구경, 독서, 여행 등의 취미활동을 가장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얻고 있었다. 이는 60대와 병원방문횟수가 낮은 건강한 노인들이 관람, 감상 등의 여가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22]와 견해를 같이 한다.

학습활동은 연령(F=2.369, p<.05), 학력(F=7.449, p<.001), 배우자유무(t=-2.849, p<.01), 건강상태(F=4.546, p<.01), 경제상태(F=4.145, p<.01)에서 차이가 있었다. 60~64세이면서 고등학교 졸업에 배우자가 있고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노인학교, 사회교육기관 및 문화센터 등에서의 학습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학습활동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선행연구[37]에서도 건강하고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교양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노년기의 학습 활동 참여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교활동은 학력(F=5.085, p<.01), 배우자유무(t=-4.674, p<.001), 건강상태(F=10.644, p<.001), 경제상태(F=22.131, p<.0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에 배우자가 있으면서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지역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소일거리는 성별(t=-6.218, p<.001)과 건강상태(F=3.046, p<.05)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이면서 건강상태가 보통인 노인들이 집안 청소나 설거지, 집근처 정원이나 화초, 나무가꾸기 등의 소일거리를 가장 많이 하면서 허전함을 해소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여가활동의 요인인 취미활동, 학습활동, 사교활동, 소일거리 모두에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건강상태였다. 이는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소일형과 취미문화형 여가활동의 참여가 높다고 한 연구[35]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농촌 노인의 여가 활동에는 건강상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차이

구분	취미활동			학술행동			사회활동			소외거리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성 (n=141)	2.878	.869	2.405	.918	3.135	.925	2.931	1.008	3.622	.978	4.218**
	여성 (n=183)	2.585	.963	2.242	.984	3.104	.990	3.622	.978	3.622	.978	
연령	60-64세 (n=44)	3.153	.626	2.542	.851	3.277	.877	3.483	.759	3.483	.759	
	65-69세 (n=55)	2.932	.834	2.330	.901	3.305	.948	3.586	.980	3.586	.980	
	70-74세 (n=59)	2.549	.877	2.355	.917	3.136	.883	3.388	1.032	3.388	1.032	
	75-79세 (n=77)	2.683	.863	2.416	.901	3.151	1.014	3.192	1.196	3.192	1.196	
	80-84세 (n=52)	2.451	.930	2.135	1.033	2.800	.963	3.144	1.121	3.144	1.121	
	85세이상 (n=27)	2.561	1.123	1.852	1.023	2.941	1.057	3.056	.929	3.056	.929	
학력	무학 (n=73)	2.211	.868	2.082	.926	2.795	.923	3.134	1.170	3.134	1.170	
	초졸 (n=100)	2.463	.856	2.068	.894	3.060	.944	3.465	1.044	3.465	1.044	
	중졸 (n=62)	3.118	.819	2.530	1.074	3.490	.899	3.383	1.044	3.383	1.044	
	고졸 (n=63)	3.222	.751	2.749	.810	3.251	.935	3.369	.964	3.369	.964	
	대졸이상 (n=26)	2.885	1.034	2.372	.880	3.031	1.046	3.029	.813	3.029	.813	
	없음 (n=135)	2.404	.918	2.136	.934	2.831	.928	3.370	1.009	3.370	1.009	
배우자 유무	있음 (n=189)	2.933	.883	2.440	.958	3.322	.933	3.286	1.076	3.286	1.076	
	없음 (n=239)	2.673	.952	2.337	.991	3.056	.981	3.279	1.095	3.279	1.095	
	동거함 (n=85)	2.825	.874	2.247	.862	3.289	.884	3.438	.896	3.438	.896	
자녀 동거 여부	없음 (n=240)	2.641	.999	2.305	1.003	3.066	1.004	3.288	1.083	3.288	1.083	
	있음 (n=84)	2.918	.676	2.337	.799	3.264	.814	3.417	.939	3.417	.939	
	없음 (n=89)	2.559	.964	2.343	.998	3.175	.969	3.253	1.147	3.253	1.147	
건강 상태	매우 나쁨 (n=31)	2.078	1.110	1.984	1.019	2.594	1.257	2.815	1.250	2.815	1.250	
	나쁨 (n=104)	2.467	.897	2.122	.905	2.842	.887	3.300	1.055	3.300	1.055	
	보통 (n=123)	2.926	.869	2.453	.981	3.367	.904	3.437	1.076	3.437	1.076	
	좋음 (n=66)	3.002	.781	2.510	.890	3.330	.814	3.375	.803	3.375	.803	
	매우아름답음 (n=42)	2.173	.910	2.099	.914	2.362	.996	3.202	1.226	3.202	1.226	
	없음 (n=79)	2.450	.936	2.061	.914	2.772	.889	3.237	.962	3.237	.962	
경제 상태	보통 (n=166)	2.830	.830	2.450	.967	3.380	.828	3.372	1.074	3.372	1.074	
	좋음 (n=37)	3.363	.910	2.482	.941	3.535	.936	3.405	.890	3.405	.890	
	없음 (n=37)	2.450	.936	2.061	.914	2.772	.889	3.237	.962	3.237	.962	

* $p < .05$, ** $p < .01$, *** $p < .001$, a,b,c는 scheff 검증결과.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차이

본 연구는 주관적 삶의 질을 삶의 만족도와 기대감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각각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반적 삶의 만족은 학력(F=4.573, $p < .01$), 배우자유무($t = -3.210$, $p < .01$), 직업유무($t = -2.660$, $p < .01$), 건강상태(F=10.646, $p < .001$), 경제상태(F=18.722, $p < .0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면서 배우자와 직업이 있고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주관적 건강만족은 연령(F=2.980, $p < .05$), 학력(F=8.765, $p < .001$), 배우자유무($t = -3.358$, $p < .01$), 직업유무($t = -3.858$, $p < .001$), 건강상

태(F=46.438, $p < .001$), 경제상태(F=13.824, $p < .001$)에서 차이가 있었고, 연령은 60~64세,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면서 배우자와 직업이 있으며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의 주관적인 건강만족이 가장 높았다. 주관적 경제만족은 학력(F=4.496, $p < .01$), 배우자유무($t = -3.269$, $p < .01$), 자녀동거여부($t = -2.533$, $p < .05$), 건강상태(F=12.212, $p < .001$), 경제상태(F=60.208, $p < .001$)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학교 졸업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와 동거하면서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자신의 경제생활수준이나 저축액, 여유자금 및 소비생활 수준에 가장 만족하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별로 없었다.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구분	전반적 삶의 만족			주관적 건강만족			주관적 경제만족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성 (n=141)	3.246	.863	3.457	.910	1.855	2.988	.918	
	여성 (n=183)	3.098	.905	3.271	.883	1.855	2.967	.883	.208
연령	60-64세 (n=44)	3.344	.597	3.737	.572	2.980*	3.000	.795	
	65-69세 (n=55)	3.281	.710	3.426	.764	2.980*	3.076	.720	
	70-74세 (n=59)	3.095	.908	3.362	.881	2.980*	3.065	.830	
	75-79세 (n=77)	3.100	1.028	3.273	.936	2.980*	2.920	.981	1.054
	80-84세 (n=52)	3.110	.980	3.063	1.029	2.980*	2.756	.926	
	85세이상 (n=27)	3.079	.962	3.328	1.075	2.980*	3.093	1.190	
학력	무학 (n=73)	3.045	1.029	3.008	.938	4.573**	2.705	.937	
	초졸 (n=100)	2.923	.865	3.170	.830	4.573**	2.940	.829	
	중졸 (n=62)	3.396	.703	3.730	.802	8.765***	3.333	.826	4.496**
	고졸 (n=63)	3.358	.809	3.626	.770	8.765***	3.037	.882	
	대졸이상 (n=26)	3.385	.817	3.451	1.047	8.765***	2.878	.998	
	없음 (n=135)	2.978	.857	3.157	.936	4.573**	2.786	.879	-3.269**
배우자 유무	있음 (n=189)	3.295	.890	3.491	.846	-3.210**	3.112	.888	
	없음 (n=239)	3.115	.916	3.335	.918	-3.210**	2.902	.880	
	동거함 (n=85)	3.296	.797	3.400	.843	-3.210**	3.186	.918	-2.533*
직업 유무	없음 (n=240)	3.086	.923	3.255	.944	-2.660**	2.950	.962	
	있음 (n=84)	3.383	.744	3.628	.685	-2.660**	3.052	.679	-1.051
	없음 (n=89)	3.029	.901	3.340	.857	-2.660**	2.850	.847	-1.561
건강 상태	매우 나쁨 (n=31)	3.213	.881	3.382	.915	-1.672	3.024	.912	
	나쁨 (n=104)	2.733	1.077	2.323	1.185	10.646***	2.312	1.897	
	보통 (n=123)	2.886	.956	2.960	.807	10.646***	2.779	.841	12.212***
	좋음 (n=66)	3.370	.723	3.661	.624	10.646***	3.196	.751	
	매우아름답음 (n=42)	3.413	.778	3.877	.623	10.646***	3.189	.870	
	없음 (n=79)	2.500	1.068	2.711	1.013	10.646***	2.060	.832	
경제 상태	보통 (n=166)	2.890	.860	3.174	.889	18.722***	2.513	.787	60.208***
	좋음 (n=37)	3.362	.711	3.509	.783	18.722***	3.224	.616	
	없음 (n=37)	3.602	.902	3.757	.849	18.722***	3.896	.864	

* $p < .05$, ** $p < .01$, *** $p < .001$, a,b,c는 scheff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의 요인인 전반적 삶의 만족, 주관적 건강만족, 주관적 경제만족 모두에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학력, 건강 및 경제상태였다.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중학교 정도의 학력수준에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집단에서 높았는데, 이는 건강상태와 생활수준이 높고 중학교 이상의 학력집단에서 생활만족 척도로 평가한 삶의 질이 높다고 밝힌 이택영 외[44]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김희경 외[8]의 연구에서도 학력과 생활수준, 통증 등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일정 수준의 교육과 건강한 삶, 주관적인 경제상태의 인식은 농촌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기대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8], 기대수명은 성별($t=2.846$, $p<.01$), 학력($F=6.724$, $p<.001$), 배우자유무($t=-3.521$, $p<.001$), 직업유무($t=-3.736$, $p<.001$), 건강상태($F=16.049$, $p<.001$), 경제상태($F=11.874$, $p<.0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면서 고등학교 졸업에 배우자와 직업이 있고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았으며, 동년배나 평균수명보다 더 오래 살고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다고 여기고 있었다. 생활수준 기대감은 성별($t=3.776$, $p<.001$), 연령($F=4.589$, $p<.001$), 학력($F=12.210$, $p<.001$), 배우자유무($t=-6.691$, $p<.001$), 자녀동거여부($t=-3.422$, $p<.01$), 직업유무($t=-6.256$, $p<.001$), 건강상태($F=18.175$, $p<.001$), 경제상태($F=50.745$, $p<.001$)에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남성, 연령은 60~64세,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면서 배우자와 직업이 있고 자녀와 동거할 뿐 아니라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의 생활수준 기대감이 가장 높았으며, 앞으로의 생활이나 문화 및 여가생활이 더 나아지고 자식세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정부/지자체 기대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성이면서 85세 이상에 중학교 졸업, 종교와 직업이 없으면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며 건강상태가 보통이고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의 정부/지자체 기대감이 가장 높았다.

표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기대감 차이

구분	기대수명			생활수준 기대감			정부/지자체 기대감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성 (n=141)	2.820	.786	2.846**	2.854	.886	3.776***	2.998	.737	1.209
	여성 (n=183)	2.569	.785		2.484	.865		2.893	.818	
연령	60~64세 (n=44)	2.882	.700	2.219	2.945	.744	4.589*** a/b	2.920	.729	.489
	65~69세 (n=55)	2.822	.833		2.858	.888		2.909	.798	
	70~74세 (n=99)	2.588	.739		2.672	.801		2.949	.762	
	75~79세 (n=77)	2.696	.770		2.613	.905		2.984	.746	
	80~84세 (n=52)	2.427	.838		2.192	.722		2.827	.819	
	85세이상 (n=27)	2.719	.881		2.615	1.251		3.093	.961	
학력	무학 (n=73)	2.384	b	6.724*** a/b	2.247	b	12.210*** a/b	2.863	.775	1.522
	초졸 (n=100)	2.572	ab		2.422	b		2.853	.858	
	중졸 (n=62)	2.877	a		3.003	a		3.113	.839	
	고졸 (n=63)	2.984	a		2.978	a		3.028	.627	
	대졸이상 (n=26)	2.700	ab		2.962	a		2.856	.679	
배우자 유무	없음 (n=135)	2.498	.791	-3.521***	2.277	.794	-6.691***	2.898	.885	-793
	있음 (n=189)	2.807	.773		2.908	.866		2.968	.705	
자녀동거 여부	동거안함 (n=239)	2.655	.795	-880	2.546	.839	-3.422**	2.942	.772	.132
	동거함 (n=85)	2.744	.793		2.925	.977		2.929	.823	
직업 유무	없음 (n=240)	2.595	.833	-3.736***	2.472	.872	-6.256***	2.949	.847	.461
	있음 (n=84)	2.917	.616		3.140	.755		2.911	.573	
종교 유무	없음 (n=89)	2.666	.745	-.442	2.510	.789	-1.681	2.972	.696	.464
	있음 (n=235)	2.710	.813		2.696	.924		2.927	.816	
건강 상태	매우나쁨 (n=31)	2.116	b	16.049*** a/b	2.013	b	18.175*** a/b	2.823	.636	1.986
	나쁜편 (n=104)	2.425	b		2.331	b		2.813	.861	
	보통 (n=123)	2.904	a		2.894	a		3.041	.788	
	좋은편 (n=86)	2.921	a		2.973	a		3.004	.690	
경제 상태	매우아려움 (n=42)	2.314	c	11.874*** a/b/c	1.876	c	50.745*** a/b/c	2.940	.839	2.202
	아려움편 (n=79)	2.473	bc		2.177	c		2.940	.811	
	보통 (n=166)	2.748	b		2.849	b		2.872	.766	
	좋은편 (n=37)	3.216	a		3.600	a		3.236	.702	

* $\alpha<.05$, ** $\alpha<.01$, *** $\alpha<.001$, a,b,c는 scheff 검증결과.

삶의 기대감의 요인 중 정부/지자체 기대감을 제외하고 기대수명과 생활수준 기대감에 공통적인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학력, 배우자유무, 직업유무, 건강 및 경제상태였다. 농촌 노인의 삶의 기대감은 남성과 중,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수준에 배우자와 직업이 있고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집단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삶의 기대감 차이를 분석한 연구[41]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으

나, 농촌 노인이 대상인 본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삶의 기대감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노인들이 삶에 대해 낙관적이고 여성고령자의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한데 비해 남성 고령자의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연구[43]와 견해를 같이 한다.

2.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는데, 성별과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직업유무, 종교유무는 더미변수화하여 투입하였다. 2단계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요인을 투입하였고, 3단계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여가활동 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상대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으로 파악하였으며, VIF값의 경우 1단계 1.045~1.418, 2단계 1.125~2.481, 3단계 1.136~2.587로서 10 이하의 값을 보임으로써 각 단계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종속변수인 주관적 삶의 질을 삶의 만족도(전반적 삶의 만족, 주관적 건강만족, 주관적 경제만족)와 삶의 기대감(기대수명, 생활수준 기대감, 정부/지자체 기대감)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각각의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1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1.1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전반적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1단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회귀모형은 $F=7.574$,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전반적 삶의 만족에 대하여 17.8%를 설명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건강상태($t=2.528$, $p<.05$)와 경제상태($t=5.037$, $p<.001$)가 전반적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는데, 건강상태($\beta=.145$)에 비

해 경제상태($\beta=.294$)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농촌 노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이 높아짐을 가리키며, 소득수준과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4][39]와 일치된 결과였다.

2단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10.686$,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30.9%로서 1단계보다 13.1%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건강상태($t=1.987$, $p<.05$)와 경제상태($t=3.853$, $p<.001$)가 전반적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활동 요인에서는 종교활동($t=2.817$, $p<.01$), 경제활동($t=2.572$, $p<.05$), 지역사회 참여활동($t=3.910$, $p<.001$)이 정(+)의 영향요인이었다. 또한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활동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지역사회 참여활동($\beta=.219$), 종교활동($\beta=.209$), 경제활동($\beta=.168$)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종교 및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므로, 농촌 노인의 사회적 활동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3단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14.430$,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44.5%로서 2단계보다 13.6%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경제상태($t=2.349$, $p<.05$)가 전반적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사회활동에서는 종교활동($t=2.948$, $p<.01$)이, 여가활동에서는 취미활동($t=2.201$, $p<.05$), 학습활동($t=3.469$, $p<.01$), 사교활동($t=5.100$, $p<.001$)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사교활동($\beta=.321$), 학습활동($\beta=.210$), 종교활동($\beta=.203$), 취미활동($\beta=.151$)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으로써 농촌 노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에는 사회활동보다 여가활동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결과를 해석하면, 사교활동과 학습 및 취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종교활동에 참여할수록 농촌 노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44.5%로서 2단계보다 13.6% 증가하였다.

표 9.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017	.285	.018	.318	.070	1.260
	연령	.003	.053	.050	.896	.041	.821
	학력	.068	1.132	-.021	-.362	-.049	-.920
	배우자유무 ²⁾	.028	.465	.004	.073	.056	1.079
	자녀동거여부 ³⁾	.038	.726	.019	.375	.002	.038
	직업유무 ⁴⁾	.007	.122	.032	.539	.042	.772
	종교유무 ⁵⁾	.054	1.034	.113	1.614	.061	.956
사회활동	건강상태	.145	2.528*	.106	1.987*	.046	.957
	경제상태	.294	5.037***	.216	3.853***	.154	2.349*
	자원봉사활동			.076	1.147	.059	.931
	종교활동			.209	2.817**	.203	2.948**
여가활동	경제활동			.168	2.572*	.079	1.316
	지역사회 참여활동			.219	3.910***	.014	.228
	취미활동					.151	2.201*
	학습활동					.210	3.469**
여가활동	사교활동					.321	5.100***
	소일거리					.038	.737
F		7.574***		10.686***		14.430***	
R ²		.178		.309		.445	
ΔR^2				.131		.136	

* $p < .05$, ** $p < .01$, *** $p < .001$

¹⁾성별(여성=0, 남성=1), ²⁾배우자유무(없다=0, 있다=1), ³⁾자녀동거여부(안한다=0, 한다=1), ⁴⁾직업유무(없다=0, 있다=1), ⁵⁾종교유무(없다=0, 있다=1)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활동과 종교활동 및 전반적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김남희, 최수일[18]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사회적 특성인 사회활동, 종교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농촌 노인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사회활동과 종교활동은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둘째, 사교, 취미 및 학습활동 등의 여가활동이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가중심의 농촌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34]의 결과를 지지하였고, 여가활동이 심리적 행복감의 영향요인이라는 이정화, 한경혜[16]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농촌 노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는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에의 참여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1.2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주관적 건강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주관적 건강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16.426$,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32.0%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건강상태($t=8.669$, $p < .001$)와 경제상태($t=2.750$, $p < .001$)가 주관적 건강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상태($\beta=.146$)에 비해 건강상태($\beta=.451$)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노인의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건강만족이 높아진다는 결과로서, 생활비가 많을수록 노인의 건강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53]와 견해를 같이 한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사회활동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16.612$,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41.1%로서 1단계보다 9.1%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종교유무($t=3.351$, $p < .01$)와 건강상태($t=8.653$, $p < .001$)가 주관적 건강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활동에서는 종교활동($t=3.405$, $p < .01$)과 지역사회 참여활동($t=4.086$, $p < .001$)이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주관적 건강만족에 대한 사회활동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지역사회 참여활동($\beta=.229$), 종교활동($\beta=.224$)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종교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주관적 건강만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농촌 노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을 높이는데 있어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종교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20.248$,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2.9%로서 2단계보다 11.8%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종교유무($t=2.932$, $p < .01$)와 건강상태($t=8.272$, $p < .001$)가 주관적 건강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활동에서는 자원봉사활동($t=2.096$, $p < .05$)과 종교활동($t=2.965$, $p < .01$)이, 여가활동에서는 취미활동($t=5.033$, $p < .001$), 소일거리($t=3.708$, $p < .01$)가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표 10.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주관적 건강만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 사회 특성	성별 ¹⁾	.020	.381	.042	.803	.107	2.097*
	연령	-.045	-.854	-.026	-.500	-.024	-.515
	학력	.095	1.736	.022	.407	.010	.203
	배우자유무 ²⁾	.019	.342	-.006	-.117	-.045	-.936
	자녀동거여부 ³⁾	.009	.179	.001	.016	-.027	-.656
	직업유무 ⁴⁾	.040	.749	.024	.437	.017	.343
	종교유무 ⁵⁾	.051	1.082	.217	3.351**	.172	2.932**
사회 활동	건강상태	.451	8.669***	.425	8.653***	.369	8.272***
	경제상태	.146	2.750**	.101	1.948	.041	.844
	자원봉사활동			.027	.441	.121	2.096*
	종교활동			.224	3.405**	.188	2.965**
	경제활동			.037	.618	-.027	-.488
여가 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229	4.086***	.108	1.893
	취미활동					.317	5.033***
	학습활동					.005	.098
	사교활동					.104	1.786
	소일거리					.177	3.708***
F		16.426***		16.612***		20.248***	
R ²		.320		.411		.529	
ΔR^2				.091		.118	

* $\alpha < .05$, *** $\alpha < .001$

¹⁾성별(여성=0, 남성=1), ²⁾배우자유무(없다=0, 있다=1), ³⁾자녀동거여부(안한다=0, 한다=1), ⁴⁾직업유무(없다=0, 있다=1), ⁵⁾종교유무(없다=0, 있다=1)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의 요인 중에서 주관적 건강만족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취미활동($\beta=.317$), 소일거리($\beta=.177$), 종교활동($\beta=.188$), 자원봉사활동($\beta=.121$)의 순으로서, 취미활동과 소일거리를 할 뿐 아니라 종교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농촌 노인의 주관적 건강만족이 높아지고 있었다.

2.1.3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주관적 경제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주관적 경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21.912$, $p<.001$ 에서 유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직업유무($t=2.917$, $p<.01$), 건강상태($t=2.217$, $p<.05$), 경제상태($t=11.441$, $p<.001$)가 주관적 경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38.6%이었다. 이는 직업이 있으면서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농촌 노인의 주관적 경제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경제상태($\beta=.578$), 직업유무($\beta=.149$), 건강상태($\beta=.110$)의 순으로서 주관적 경제만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경제상태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사회활동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20.157$,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주관적 경제만족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45.8%로서 1단계보다 7.2%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직업유무($t=3.771$, $p<.001$)와 경제상태($t=10.217$, $p<.001$)가 주관적 경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활동 요인에서는 경제활동($t=3.542$, $p<.001$)이 정(+)의 영향요인이었다. 이는 직업과 경제활동, 경제상태가 농촌 노인의 주관적인 경제만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로서, 특히 사회활동 중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주관적 경제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주관적 경제만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 사회 특성	성별 ¹⁾	-.033	-.644	-.053	-1.065	-.059	-1.150
	연령	.000	-.008	.052	1.063	.046	.984
	학력	.005	.100	-.054	-1.029	-.068	-1.363
	배우자유무 ²⁾	.032	.617	.020	.402	-.022	-.452
	자녀동거여부 ³⁾	.059	1.283	.040	.903	.020	.475
	직업유무 ⁴⁾	.149	2.917**	.198	3.771***	.152	2.997**
	종교유무 ⁵⁾	.021	.457	-.053	-.860	-.003	-.043
사회 활동	건강상태	.110	2.217*	.078	1.650	.042	.928
	경제상태	.578	11.441***	.507	10.217***	.429	8.761***
	자원봉사활동			.094	1.605	.011	.196
	종교활동			.064	.973	.010	.152
	경제활동			.205	3.542***	.148	2.651**
여가 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105	1.952	.018	.308
	취미활동					.259	4.066***
	학습활동					-.081	-1.510
	사교활동					.201	3.441**
	소일거리					-.041	-.851
F		21.912***		20.157***		19.493***	
R ²		.386		.458		.520	
ΔR^2				.072		.062	

* $\alpha < .05$, ** $\alpha < .01$, *** $\alpha < .001$

¹⁾성별(여성=0, 남성=1), ²⁾배우자유무(없다=0, 있다=1), ³⁾자녀동거여부(안한다=0, 한다=1), ⁴⁾직업유무(없다=0, 있다=1), ⁵⁾종교유무(없다=0, 있다=1)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사회활동 및 여

가활동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19.493,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주관적 경제만족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2.0%로서 2단계보다 6.2%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직업유무 ($t=2.997, p<.01$), 경제상태($t=8.761, p<.001$)가 주관적 경제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활동의 경제활동($t=2.651, p<.001$)과 여가활동의 취미활동($t=4.066, p<.001$), 사교활동($t=3.441, p<.01$)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취미활동($\beta=.259$), 사교활동($\beta=.201$), 경제활동($\beta=.148$)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으로써 농촌 노인의 주관적인 경제만족에는 취미활동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만족 및 경제만족에는 취미활동, 사교활동 등의 여가활동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여가활동을 제시한 선행연구[22][39]와 견해를 같이 하였지만, 이들 연구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의 경우 삶의 만족도를 세분화하여 영향요인을 규명한 것에 차이가 있다.

2.2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삶의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2.2.1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7.459, p<.001$ 에서 유의하였고, 기대수명에 대하여 17.6%를 설명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건강상태($t=3.933, p<.001$)와 경제상태($t=3.098, p<.01$)가 기대수명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상태($\beta=.181$)에 비해 건강상태($\beta=.225$)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노인의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앞으로 더 오래 사는데 있어 건강이나 경제상태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사회활동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8.502, p<.001$ 에

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6.3%로서 1단계보다 8.7%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종교유무 ($t=2.620, p<.01$), 건강상태($t=3.500, p<.01$), 경제상태 ($t=2.002, p<.05$)가 기대수명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사회활동에서는 종교활동($t=2.025, p<.05$)과 경제활동 ($t=2.420, p<.05$)이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기대수명에 대한 사회활동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경제활동($\beta=.163$), 종교활동($\beta=.156$)의 순이었으며, 경제활동과 종교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수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 수준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서는 경제상태나 종교활동이 영향을 지닌 것으로 밝혀져 왔는데[54],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은 앞으로 살 날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표 12.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¹⁾	.074	1.261	.076	1.300	.125	2.082*
	연령	-.012	-.206	.034	.603	.039	.709
	학력	.106	1.757	.023	.383	-.010	-.175
	배우자유무 ²⁾	.024	.391	.006	.108	-.017	-.300
	자녀동거여부 ³⁾	.025	.471	.008	.152	.012	.239
	직업유무 ⁴⁾	.006	.095	-.030	-.497	.002	.030
	종교유무 ⁵⁾	.052	.999	.189	2.620**	.149	2.297*
	건강상태	.225	3.933**	.192	3.500**	.158	2.816**
	경제상태	.181	3.098**	.116	2.002*	.084	1.473
사회 활동	자원봉사활동			.128	1.881	.001	.016
	종교활동			.156	2.025*	.119	1.538
	경제활동			.163	2.420*	.115	1.827
	지역사회 참여활동			.107	1.707	.030	.447
여가 활동	취미활동					.287	3.853**
	학습활동					.025	.404
	사교활동					.008	.122
	소일거리					.166	2.948**
F		7.459***		8.502***		9.464***	
R ²		.176		.263		.345	
ΔR^2				.087		.082	

* $\alpha<.05$, ** $\alpha<.01$, *** $\alpha<.001$

¹⁾성별(여성=0, 남성=1), ²⁾배우자유무(없다=0, 있다=1), ³⁾자녀동거여부(안한다=0, 한다=1), ⁴⁾직업유무(없다=0, 있다=1), ⁵⁾종교유무(없다=0, 있다=1)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9.464,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34.5%로서 2단계보다 8.2%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

적 특성의 종교유무($t=2.297, p<.05$), 건강상태($t=2.816, p<.01$)가 기대수명에 정(+)¹⁾의 영향을 주었고, 사회활동에서는 영향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사회활동보다 여가활동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여가활동에서는 취미활동($t=3.853, p<.001$)과 소일거리($t=2.948, p<.01$)가 기대수명에 정(+)²⁾의 영향을 주었으며,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취미활동($\beta=.287$), 소일거리($\beta=.166$)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노인들이 여가로 취미활동과 소일거리를 할수록 수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의 여가활동이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15]를 근거로 하면 여가활동은 기대수명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기대수명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인데, 지속적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대수명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2.2.2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생활수준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생활수준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24.695,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생활수준 기대감에 대하여 41.4%를 설명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학력($t=2.593, p<.05$), 자녀동거여부($t=2.418, p<.05$), 건강상태($t=2.454, p<.05$), 경제상태($t=8.198, p<.001$)가 생활수준 기대감에 정(+)³⁾의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상태($\beta=.404$), 학력($\beta=.132$), 건강상태($\beta=.119$), 자녀동거여부($\beta=.108$)의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고 자녀와 동거를 하면서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농촌 노인의 생활수준 기대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사회활동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28.278,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4.3%로서 1단계보다 12.9%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종교유무($t=2.016, p<.05$), 경제상태($t=6.713, p<.001$)가 생활수준 기대감에 정(+)⁴⁾의 영향을 주었고, 사회활동의 자원봉사활동($t=2.358, p<.05$), 종교활동($t=2.517, p<.05$),

경제활동($t=6.444, p<.001$)이 정(+)⁵⁾의 영향을 나타냈다. 사회활동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경제활동($\beta=.342$), 종교활동($\beta=.152$), 자원봉사활동($\beta=.127$)의 순으로 컸으며, 경제활동과 종교 및 자원봉사활동을 할수록 농촌 노인의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어느 정도 안정된 경제적 수준과 경제활동은 농촌 노인의 생활수준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표 13.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생활수준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¹⁾	.071	1.442	.050	1.077	.075	1.641
	연령	-.037	-.752	.023	.512	.021	.495
	학력	.132	2.593*	.039	.813	.007	.161
	배우자유무 ²⁾	.082	1.598	.077	1.663	.038	.880
	자녀동거여부 ³⁾	.108	2.418*	.066	1.617	.047	1.262
	직업유무 ⁴⁾	.086	1.726	-.017	-.354	.033	.732
	종교유무 ⁵⁾	.038	.866	.115	2.016*	.071	1.345
	건강상태	.119	2.454*	.078	1.804	.031	.763
	경제상태	.404	8.198***	.356	6.713***	.276	5.627***
사회 활동	자원봉사활동			.127	2.358*	.003	.052
	종교활동			.152	2.517*	.112	1.969*
	경제활동			.342	6.444***	.281	5.650***
	지역사회 참여활동			.034	.695	.089	1.728
여가 활동	취미활동					.270	4.750***
	학습활동					.061	1.284
	사교활동					.120	2.294*
	소일거리					.058	1.364
F		24.695***		28.278***		29.225***	
R ²		.414		.543		.619	
ΔR^2				.129		.076	

* $\alpha<.05$, *** $\alpha<.001$

¹⁾성별(여성=0, 남성=1), ²⁾배우자유무(없다=0, 있다=1), ³⁾자녀동거여부(안한다=0, 한다=1), ⁴⁾직업유무(없다=0, 있다=1), ⁵⁾종교유무(없다=0, 있다=1)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29.225,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61.9%로서 2단계보다 7.6%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경제상태($t=5.627, p<.001$)가 생활수준 기대감에 정(+)⁶⁾의 영향을 주었고, 사회활동에서는 종교활동($t=1.969, p<.05$), 경제활동($t=5.650, p<.001$)이, 여가활동에서는 취미활동($t=4.750, p<.001$), 사교활동($t=2.294, p<.05$)이 정(+)⁷⁾의 영향을 나타냈다.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경제활동(β

=.281), 취미활동(β =.270), 사교활동(β =.120), 종교활동(β =.112)의 순으로서 경제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경제활동과 종교활동을 통해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가로 취미 및 사교활동을 많이 할수록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2.2.3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정부/지자체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정부/지자체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4]에서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정부/지자체 기대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없었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사회활동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2.341$, $p<.01$ 에서 유의하였고, 정부/지자체 기대감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8.9%로서 1단계보다 6.6% 증가하였다. 사회활동의 자원봉사활동($t=2.020$, $p<.05$)과 경제활동($t=2.450$, $p<.05$)이 정부/지자체 기대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자원봉사활동(β =.153)에 비해 경제활동(β =.184)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노인들이 경제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수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로서, 노년기의 사회활동이 긍정적인 인식과 기대를 갖게 함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F=2.751$,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3.3%로서 2단계보다 4.4% 증가하였다. 정부/지자체 기대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t=2.198$, $p<.05$)과 취미활동($t=3.281$, $p<.01$)이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경제활동(β =.165)에 비해 취미활동(β =.281)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농촌 노인의 경우 취미활동과 경제활동을 할수록 정부/지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므로 취미생활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표 14.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정부/지자체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¹⁾	.046	.717	.035	.546	.043	.616
	연령	.039	.618	.092	1.447	.096	1.540
	학력	.051	.768	-.017	-.252	-.040	-.594
	배우자유무 ²⁾	.017	.256	.005	.079	-.003	-.052
	자녀동거여부 ³⁾	.002	.039	-.013	-.227	-.026	-.464
	직업유무 ⁴⁾	-.073	-1.137	-.123	-1.800	-.112	-1.641
	종교유무 ⁵⁾	-.032	-.561	-.115	-1.427	-.093	-1.160
	건강상태	.112	1.799	.082	1.342	.059	.966
사회 활동	경제상태	.015	.238	.047	.727	-.061	-.932
	자원봉사활동			.153	2.020*	.075	.960
	종교활동			.068	.800	.014	.163
	경제활동			.184	2.450*	.165	2.198*
여가 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041	.594	.050	.644
	취미활동					.281	3.281**
	학습활동					-.092	-1.277
	사교활동					-.083	-1.049
					.087	1.343	
F		0.827		2.341**		2.751***	
R ²		.023		.089		.133	
ΔR^2				.066		.044	

* $p<.05$, ** $p<.01$

¹⁾성별(여성=0, 남성=1), ²⁾배우자유무(없다=0, 있다=1), ³⁾자녀동거여부(안한다=0, 한다=1), ⁴⁾직업유무(없다=0, 있다=1), ⁵⁾종교유무(없다=0, 있다=1)

본 연구에서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와 삶의 기대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미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취미활동으로 산책, 등산, 운동을 하고 음악회, 전시회, 공연관람, 영화, 쇼핑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일상생활에 활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이다. 취미활동과 삶의 질과의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로 밝혀져 왔으므로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문화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및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삶의 만족도의 개념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만이 아니라 삶의 기대감까지 확장하여 주관적인 삶의 질을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노인들의 비중이 높고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기대감을 살펴보는 것은 노인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삶의 만족도 및 기대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를 보였다. 농촌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가활동 및 삶의 질의 관련성은 선행연구[2][34]에서도 확인되었고,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연구[8][35]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이 발견되었다. 201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55]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이 건강검진, 간병서비스, 가사서비스, 취업알선, 취미여가프로그램 등의 복지서비스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건강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노인학교를 운영하거나 교육기관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한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와 삶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결과였다. 삶의 기대감은 기대수명, 생활수준 기대감, 정부 및 지자체 기대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기대수명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고, 동년배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60~64세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으며, 85세 이상에서도 기대수명에 대해 낙관적인 경향이였다. 노년기에 직면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개인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대수명이 높아진 만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개별 노력이 요구된다. 농촌 노인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거나 직업이

없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가족의 기능 상실과 외로움 및 소외감으로 인한 정신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자세 또한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 노인의 일상생활이나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가 미비하고 낮다고 주장한 선행연구[3]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종교활동과 취미, 사교활동 등의 여가활동이 농촌 노인이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학습활동은 전반적 삶의 만족에, 경제활동은 주관적 경제만족에, 자원봉사활동과 소일거리는 주관적 건강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는 농촌 노인의 삶에서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로서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가 높아지고 있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투입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농촌 노인의 여가활동 중심지는 마을의 경로당이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활성화사업 및 프로그램의 확대[56]와 더불어 지역 사회단체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관련 정책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촌 노인이 인지하는 삶의 기대감에는 취미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종교활동과 경제활동은 생활수준 기대감과 정부/지자체 기대감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를 함으로써 현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 스스로가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찾고자 노력해야 하며, 소풍, 영화 및 전시회 관람 등의 문화활동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문화활동을 즐기기 위한 인근 도시로의 여행은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종교적 믿음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활동의 기본적인 요건이 건강과 경제적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정책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을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의 관점에서 분석한데 의의가 있지만, 지역적 한계와 연구변인 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향후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

구는 경기도 Y군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후속 연구에서 지역을 확대하여 여러 농촌지역을 비교하거나 농촌과 어촌 및 도시지역의 비교 연구를 실시한다면 노인복지분야의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농촌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으로 제한하였으나, 내면적·심리적 특성이나 자녀 및 이웃과의 관계 등을 연관시킨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또한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리라 기대되며, 여가활동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실험 연구를 진행하여 농촌 노인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agrinet.co.kr/news/news_view.asp?id=x=125019
- [2] 노병일, 손정환, “농촌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 활동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대한케어복지학, 제13호, pp.77-96, 2010.
- [3] 김숙경,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제23권, pp.179-202, 2004.
- [4] 권중돈, 조주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20권, 제3호, pp.61-76, 2000.
- [5] A. P. Brief, A. H. Butcher, J. M. George, and K. E. Link,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4, No.4, pp.646-653, 1993.
- [6] 양민희,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인 삶의 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7] 김정호,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2권, 제2호, pp.325-345, 2007.
- [8] 김희경, 이현주, 박순미,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제30권, 제2호, pp.279-292, 2010.
- [9] 손신영,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제26권, 제3호, pp.601-615, 2006.
- [10] 유용식, 손호중, “인터넷활용과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235-244, 2012.
- [11] 김은정, 이신영, “농촌 노인의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사회적 지원과 우울성향: 도시 노인과의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pp.149-176, 2012.
- [12] 서선희, 임희경, “농촌 노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4권, 제1호, pp.179-203, 2004.
- [13] 김숙영, 손신영, “농촌 여성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노인간호학회지, 제14권, 제2호, pp.91-98, 2012.
- [14] 이미숙, “농촌지역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 요인-신체기능, 인지기능, 만성질환 유병률 및 영양진단”,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제17권, 제6호, pp.772-781, 2012.
- [15] 김명숙, 고종욱, “여가활동이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지지의 매개역할”, 노인복지연구, 제60권, pp.35-54, 2013.
- [16] 이정화, 한경혜, “농촌 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제13권, 제1호, pp.209-238, 2003.
- [17] 강현정, “농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1권, pp.1-26, 2009.
- [18] 김남희, 최수일, “여성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241-252, 2011.
- [19] 김수현,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가 신체적 건강,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3권, pp.53-66, 2013.

- [20] R. J. Havighurst,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1, pp.8-13, 1961.
- [21] 김근아, "사회참여활동유형과 알코올 사용에 관한 고찰-지역사회노인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제6권, 제3호, pp.1-18, 2009.
- [22] 심남수, 노인의 여가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대인관계와 사회적지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3] V. I. Erik and V. E. Koen, "Leisure and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types of company and activities," *Leisure Science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ol.31, No.2, pp.192-206, 2009.
- [24] 림금란, 김희경, 안정선,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과의 관계: 사회적지지, 사회적 활동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31권, 제1호, pp.33-47, 2011.
- [25] 이금룡, "한국노인의 사회활동: 노년기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5, No.2, pp.1-22, 2002.
- [26] 권수진, 노인의 사회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7] 오승환,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중소도시·농촌·어촌 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3권, pp.209-231, 2007.
- [28] 한상미, "노인의 사회적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여가만족과 고독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3호, pp.157-182, 2011.
- [29] 이묘숙,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0권, 제3호, pp.231-259, 2012.
- [30] 이소정, "노인의 사회적 역할 유형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정책*, 제20권, 제4호, pp.9-35, 2013.
- [31] 조경옥, "여성 노인의 건강 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 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7권, pp.203-229, 2005.
- [32] 안계일, 노인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33] L. Fratiglioni, *Risk reduction factors for Alzheimer's disease and cognitive decline in older adults: Social engagement and leisure activiti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ate-of-the- Science Conference, 2010,
- [34] 김종인, 김윤정, "농촌 노인의 일·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감", *농촌지도와 개발*, 제19권, 제2호, pp.321-353, 2012.
- [35] 백종욱, 김성오, 김미양,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임상사회사업연구*, 제7권, 제1호, pp.37-58, 2010.
- [36] 김종범, "노인의 여가활동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여가활동 만족변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제4권, 제1호, pp.71-99, 2007.
- [37] 최인근,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38] V. Toepoel, "Ageing, leisure, and social connectedness: How could leisure help reduce social isolation of older peop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13, pp.355-372, 2013.
- [39] 이갑숙, 임왕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91-306, 2012.
- [40] B. C. Liu, "Quality of life: Concept, measure and result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34, Iss.1, pp.1-14, 1975.
- [41] 김정호, 유제민, 서경현, 임성경, 김선주, 김미리혜, 공수자, 강태영, 이지선, 황정은, "삶의 만족은 만족스러운가: 주관적 웰빙 측정의 보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5권, 제1호, pp.187-205, 2009.
- [42] 이형석, 김도관, 고혜정, 구형모, 권의정, 김지혜, "노인 삶의질 척도(Geriatric Quality of Life scale)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2권,

제4호, pp.859-881, 2003.

- [43] 김미령,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차이분석”,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145-161, 2012.
- [44] 이택영, 정민애, 정보인, 유은영, 장세진, 남은우, “작업 모델(Model of Human Occupation)을 중심으로 한 노인의 활동 수준과 삶의 질”,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7권, 제1호, pp.1-15, 2009.
- [45] 주경희, “사회참여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성별과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2호, pp.5-39, 2011.
- [46] <http://klosi.kli.re.kr>
- [47] 유태균, 반정호, “중고령자 삶의 질 변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pp.349-372, 2012.
- [48] 강은영, “여성노인의 생활무용참가와 자존감 지지, 건강평가 및 삶의 기대의 관계”, 한국운동재활학회지, 제6권, 제1호, pp.31-41, 2010.
- [49] 이희연, 전혜성, “중년기여성의 삶의 기대, 마음챙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275-284, 2011.
- [50] 김수정, 노인의 소득지위에 따른 삶의 만족감 영향요인 분석,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1] 임정순, “여가활동프로그램이 농촌여성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농촌간호학회지, 제2권, 제2호, pp.120-126, 2007.
- [52] 이형만,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53] 육현숙, 노인의 건강만족도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54] 김재중,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55] <http://kostat.go.kr/wsearch/search.jsp>
- [56] 모선희, “농촌노인과 복지”, 월간 복지동향, 제4권, pp.12-16, 2002.

저 자 소 개

안 중 철(Jong-Cheol An)

정회원



• 2011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노인복지, 고령친화산업 등

임 왕 규(Wang-Kyu Lim)

정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사회적기업, 고령친화산업, 기술경영, 경영공학 등